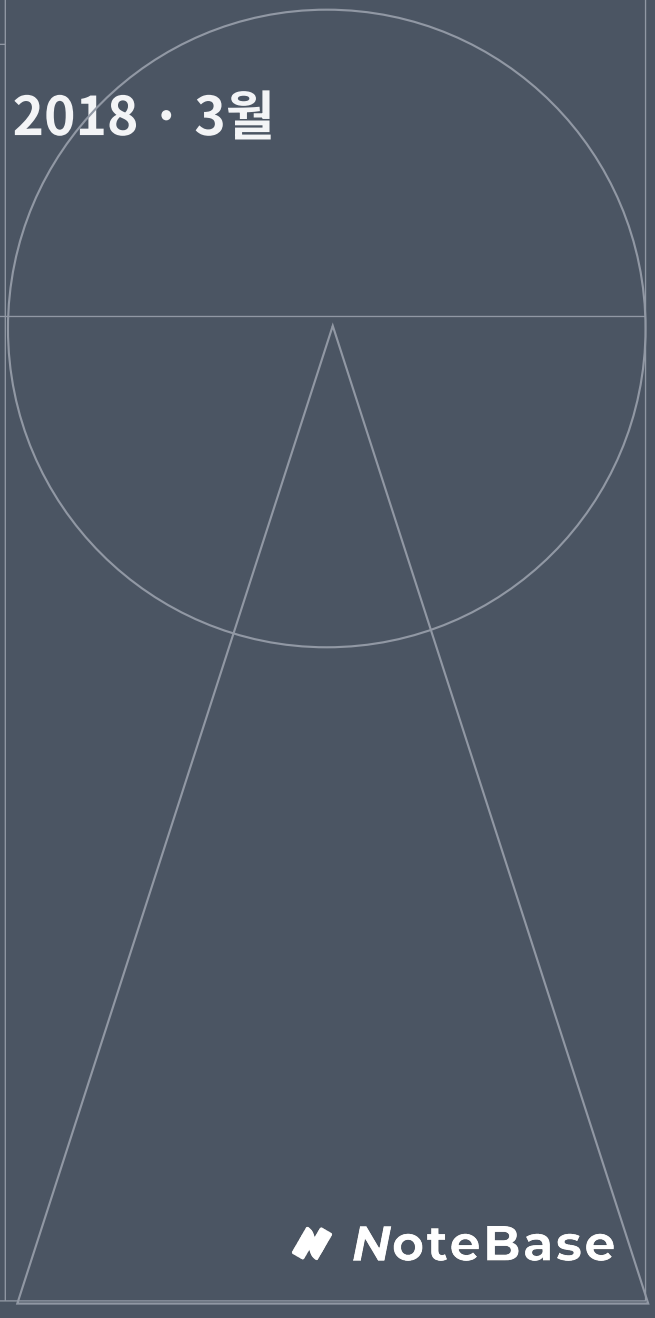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18 · 3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18 · 3월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18 · 3월

문 1.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교착어적 특성을 보여 준다.

② ‘값’과 같이 음절 말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다.

③ 담화 중심의 언어로서 주어, 목적어 등이 흔히 생략된다.

④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가 발달해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값'은 받침에 'ㅂ'과 'ㅅ'을 적지만, 발음할 때는 **[갑]처럼 자음 하나만** 남는다. 국어에서는 한 음절의 끝에서 두 자음을 함께 발음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국어는 **체언에 조사가,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문법적 관계나 뜻을 나타내는 교착어이다. '학생이'와 '학생을'은 조사에 따라 문장 속 역할이 달라지고, '먹다'와 '먹었다'는 어미에 따라 시제 등의 문법적 의미가 달라진다.

② X: 국어에서는 **음절 끝에서 자음 하나만 발음**된다. '값'의 겹받침 'ㅄ'은 표기상 두 자음이지만, 단독으로 발음하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갑]이 된다. 따라서 '음절 말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다'는 '음절 말에서는 하나의 자음만 발음된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국어는 담화의 맥락을 통해 알 수 있는 성분을 흔히 생략한다. **주어와 목적어가 문맥상 분명하면** 이를 드러내지 않아도 뜻이 통한다. 예를 들어 누가 무엇을 먹었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먹었어.'만으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④ O: 국어에는 **가족 관계를 세분하여 나타내는 친족어**가 발달해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여자 형제는 '고모', 어머니의 여자 형제는 '이모'라고 하여 부계와 모계의 관계를 구별한다.

NoteBase

문 2. 로마자 표기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로[종노] → Jongro

② 알약[알략] → allyak

③ 같이[가치] → gachi

④ 좋고[조코] → joko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종로'는 [종노]로 발음되므로, 바뀐 소리인 **ㄴ을 n으로 반영**하여 'Jongno'로 적는다. 'Jongro'는 발음에서 바뀐 ㄹ을 그대로 r로 옮긴 표기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종로'는 받침 ㅇ 뒤의 ㄹ이 ㄴ으로 바뀌어 [종노]로 발음된다. 로마자 표기에는 이러한 자음 동화의 결과를 반영하므로, ㅇ은 ng, 바뀐 ㄴ은 n으로 적어 **Jongno**가 된다. 'Jongro'의 r을 n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알약'은 ㄴ 첨가와 유음화를 거쳐 [알략]으로 발음된다. 이때 이어지는 두 ㄹ 소리는 **ll**로 적고, 어말의 ㄱ은 k로 적으므로 'allyak'이 된다.

③ O: '같이'는 받침 ㅌ이 부사 파생 접미사 '-이'의 모음 ㅣ 앞에서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가치]로 발음된다. 변화한 ㅊ을 ch로 적으므로 'gachi'가 된다.

④ O: '좋고'는 ㅎ과 ㄱ이 합쳐져 거센소리 ㅋ이 되므로 [조코]로 발음된다. 이 **거센소리되기의 결과**를 반영하여 ㅋ을 k로 적으므로 'joko'가 된다.

NoteBase

문 3. 맞춤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철수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보람을 느꼈다.

② 이제 각자의 답을 정답과 맞혀 보도록 해라.

③ 강아지가 고깃덩어리를 넙죽 받아먹었다.

④ 아이가 밥을 먹었을는지 모르겠어.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각자의 답을 기준 답안과 **비교하여 살피는** 뜻이므로 '맞혀'를 **'맞춰'**로 고쳐야 한다. '맞히다'는 문제의 답을 틀리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일함으로써'는 '일하-'에 명사형 어미 '-ㅁ'과 조사 '으로써'가 결합한 말이다. 여기서는 일하는 것을 통해 보람을 느낀다는 뜻이므로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으로써'**가 알맞다.

② X: 자기 답과 기준 답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상황이므로 **'맞혀'를 '맞춰'로 고쳐야 한다**. '맞추다'는 둘 이상의 대상을 비교하여 살핀다는 뜻이고, '맞히다'는 문제의 답을 틀리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맞추어'의 준말이 '맞춰'이므로 '각자의 답을 기준 답안과 맞춰 보도록 해라'와 같이 쓴다.

③ O: 무엇을 받아먹을 때 입을 재빨리 벌렸다가 닫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은 **'넙죽'**이다. 이 뜻의 부사는 어원이 분명하지 않아 소리대로 적으므로, '넓죽'으로 쓰지 않는다.

④ O: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을는지'**가 쓰였다. '먹었-'에 '-을는지'가 붙은 '먹었을는지'가 바른 표기이다. '먹었을런지'나 '먹었을른지'로 적지 않는다.

NoteBase

문 4. <보기>는 중세국어의 표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른 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중세국어 표기법의 일반적 원칙은 표음적 표기법으로, 이는 음운의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를 말한다. 이어적기는 이러한 원리에 따른 것으로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받침이 있는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표기를 말한다.

① 불휘 기픈
② ᄇᆞᄅᆞ매 아니 뮐씨
③ 쟝긔판늘 밍골어늘
④ 바ᄅᆞ래 가ᄂᆞ니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장긔판늘'은 ㄴ을 앞뒤 음절에 거듭 적었고, '밍글어늘'은 어간의 받침 ㄹ을 그대로 두었다. 이어적기에 따르면 각각 **'장긔파늘'**, **'밍그러늘'**로 적는다.

공통 해설

이어적기는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앞말의 받침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이다. 받침을 앞 음절에 그대로 두거나 앞뒤 음절에 거듭 적는 방식과 구별된다.

'불휘 기픈'의 '기픈'은 '깊- + -은'에서 ㅍ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긴 표기이다. 'ᄇᆞᄅᆞ매 아니 뮐ᄊᆞᄉᆡ'의 'ᄇᆞᄅᆞ매'는 'ᄇᆞᄅᆞᆷ + 애'에서 ㅁ을, '바ᄅᆞ래 가ᄂᆞ니'의 '바ᄅᆞ래'는 '바ᄅᆞᆯ + 애'에서 ㄹ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겼다. 이들은 모두 같은 이어적기 원칙을 따른다.

반면 '장긔판늘'은 '장긔판 + 을'에서 받침 ㄴ을 남겨 두면서 뒤 음절의 첫소리에도 ㄴ을 적은 **거듭적기(중철)**이다. 이어적기를 적용하면 앞 음절의 ㄴ을 뒤로 옮긴 '장긔파늘'이 된다.

'밍글어늘'은 '밍글- + -어늘'에서 어간의 받침 ㄹ을 앞 음절에 그대로 두어 어간과 어미의 형태를 밝힌 **끊어적기(분철)**이다. 이어적기를 적용하면 ㄹ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긴 '밍그러늘'이 된다. 따라서 '장긔판늘 밍글어늘'은 제시된 이어적기 원칙에 맞지 않는다.

NoteBase

문 5. <보기>의 (가)에서 밑줄 친 ㉠~㉣ 중 (나)가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초상화에서 좌안·우안을 골라 그리는 데 대한 일반적인 이론은 대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 사람의 표정은 왼쪽 얼굴에 더 잘 나타난다는 이론이며, 다른 하나는 ㉡ 그림을 그리는 것은 우뇌인데 시야의 왼쪽에 맺힌 상(像)이 우뇌로 들어오기 때문에 왼쪽이 더 잘 그려진다는 이론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 대부분의 화가는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며 오른손잡이는 왼쪽부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편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초상화 작품들을 살펴보면 ㉣ 좌안·우안이 시대에 따라 어떤 경향성을 띠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비록 원본은 아니지만 고려 말 염제신의 초상화나 조선 초 이천우의 초상화들은 대체로 우안이며, 신숙주의 초상화 이후 조선 시대의 초상화들은 거의가 좌안입니다.
(나) 화가가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에는 보통 눈·코·입의 윤곽이 중요하므로 이를 먼저 그리게 된다. 좌안을 그리면 왼쪽에 이목구비가 몰려 있어 이들을 그리고 난 후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왼쪽 뺨·귀·머리, 오른쪽 윤곽 순으로 그려나간다. 이렇게 하면 손의 움직임도 편할 뿐 아니라 그리는 도중 목탄이나 물감이 손에 묻을 확률도 줄어든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나)는 왼쪽에 몰린 이목구비를 먼저 그린 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손이 편하고 목탄이나 물감이 손에 묻을 가능성도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이는 **오른손잡이가 왼쪽부터 그리는 것이 편하다**는 ㉢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NoteBase

핵심 풀이

㉣을 뒷받침하는 단서: (나)에서 화가는 중요한 눈·코·입의 윤곽을 먼저 그린다. 좌안에서는 이목구비가 왼쪽에 몰려 있으므로, 이를 그린 다음 왼쪽 뺨·귀·머리와 오른쪽 윤곽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손의 움직임이 편하고 목탄이나 물감이 손에 묻을 가능성도 줄어든다는 설명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그리는 방식의 편리함**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따라서 (나)는 ㉣의 오른손잡이 화가가 왼쪽부터 그리는 것이 편하다는 주장에 근거를 제공한다.

다른 설명과의 구별: ㉠은 표정이 왼쪽 얼굴에 더 잘 나타난다는 설명이고, ㉡은 시야의 왼쪽에 맺힌 상과 우뇌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나 (나)는 표정의 표현 정도나 뇌의 기능을 다루지 않고 **그리는 순서와 손의 움직임**을 다룬다. 또한 ㉢은 시대에 따른 좌안·우안의 경향에 관한 설명인데, (나)에는 시대별 작품을 비교하는 내용이 없다. 이 설명들은 (나)가 제시한 근거와 연결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6.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동지(冬至)ㅅ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춘풍(春風) 니불 아레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님 오신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① 사랑하는 임의 안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②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③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④ '어론님 오신날'은 화자의 소망과 관련된 구절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화자는 홀로 보내는 긴 밤을 잘라 두었다가 임이 온 밤에 펼쳐 쓰고 싶어 한다. 이는 **임을 기다리는 그리움**과 **임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며, 임의 안위를 걱정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화자는 동짓달의 긴 밤을 잘라 이불 아래에 넣어 두었다가 사랑하는 임이 온 밤에 펼치겠다고 한다. 홀로 지내는 밤은 길게 느끼면서도 임과 함께하는 밤은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의 정서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만남을 바라는 마음**이며, 임이 무사한지 걱정하는 정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O: 시간인 '밤'을 한 허리 베어 내고, 이불 아래에 넣어 두었다가 펼칠 수 있는 물건처럼 표현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시간을 자르고 보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③ O: '서리서리'는 길게 이어진 것을 감아 놓은 모양을, '구뷔구뷔'는 굽이진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이다. 잘라 낸 밤을 감아 두었다가 펼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 낸다.

④ O: '어론님'은 사랑하는 임을 뜻한다. '어론님 오신날'은 임과 만나 함께 지내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실현되는 날이다. 그날 밤에 보관해 둔 시간을 펼치겠다는 표현에는 **임과 함께하는 밤을 길게 누리고 싶은 소망**이 담겨 있다.

NoteBase

문 7. 한자어 없이 고유어로만 구성된 문장은?

① 그의 모습을 보자 모골이 송연해졌다.

② 도대체가 무슨 일인지 가늠이 안 된다.

③ 나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여 매사에 임한다.

④ 그 노래를 들으니 불현듯 어릴 적이 떠오른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그 노래를 들으니 불현듯 어릴 적이 떠오른다'의 말들은 모두 고유어이다. 특히 **'불현듯'과 때를 뜻하는 '적'**도 한자어가 아닌 고유어이다.

공통 해설

고유어는 우리말에 본래부터 있던 말이고, 한자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이 문항은 문장의 뜻이나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문장을 이루는 말의 기원**을 묻는다. 한자에서 온 말이 하나라도 들어 있으면 고유어로만 구성된 문장이 아니다.

'그 노래를 들으니 불현듯 어릴 적이 떠오른다'에서 '그', '노래', '듣다', '불현듯', '어리다', '적', '떠오르다'는 모두 고유어이다. '불현듯'은 생각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모양을 나타내며, '어릴 적'의 '적'은 **어떤 때나 시기**를 뜻하는 고유어이다. 조사와 어미에도 한자어 요소가 없으므로 이 문장은 고유어로만 이루어져 있다.

다른 문장에는 한자에서 온 말이 들어 있다. '그의 모습을 보자 모골이 송연해졌다'에는 '모골(毛骨)'과 '송연(悚然)'이, '도대체가 무슨 일인지 가늠이 안 된다'에는 '도대체(都大體)'가 들어 있다. '나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여 매사에 임한다'에는 '매사(每事)'와 한자 '臨'을 바탕으로 한 '임하다'가 들어 있다. 이 말들은 **한글로 적혀 있어도 한자에서 온 말**이므로 해당 문장들은 고유어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NoteBase

문 8. <보기>의 문장은 구조상 중의성(重義性: 여러 가지 뜻을 갖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의 구조로부터 형성되는 의미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봄이면, 아름다운 서울의 공원과 거리의 나무에서 봄꽃들이 활짝 피어난다.

① 봄꽃은 아름답다.
② 서울은 아름답다.
③ 거리의 나무는 아름답다.
④ 서울의 공원은 아름답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아름다운'은 꽃이 피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 안에서 수식 범위가 달라진다. 주어인 **'봄꽃들'을 꾸미지는 않으므로**, 봄꽃이 아름답다는 의미는 이 문장의 구조에서 나오지 않는다.

공통 해설

구조상 중의성은 한 문장에서 단어들이 묶이는 방식이나 수식 범위가 달라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 현상이다. 이 문장에서는 관형어 '아름다운'이 **어디까지를 꾸미는지**에 따라 아름다운 대상이 달라진다.

'아름다운 [서울]의 공원과 거리의 나무'로 묶으면 서울이 아름답다는 뜻이고, '아름다운 [서울의 공원]과 거리의 나무'로 묶으면 서울의 공원이 아름답다는 뜻이다. '아름다운 [서울의 공원과 거리의 나무]'처럼 병렬된 명사구 전체를 꾸미면 서울의 공원과 거리의 나무가 모두 아름답다는 뜻이므로, 거리의 나무가 아름답다는 의미도 형성된다.

반면 '서울의 공원과 거리의 나무에서'는 꽃이 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이고, '봄꽃들이'는 주어이다. '아름다운'은 이 장소 표현 안의 명사구를 꾸미므로 **'에서' 뒤의 '봄꽃들'을 수식하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봄꽃은 아름답다'는 이 문장의 구조로부터 형성되는 의미가 아니다.

NoteBase

문 9. <보기>와 같은 유형의 논리적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네가 내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곧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① 항상 보면 이등병들이 말썽이더라.
② 내 부탁을 거절하다니, 넌 나를 싫어하는구나.
③ 김씨는 참말만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④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러므로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죄악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부탁을 거절해도 상대를 좋아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곧바로 애정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흑백 논리의 오류**이다.

공통 해설

흑백 논리의 오류는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도 두 가지 경우만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오류이다. 두 경우가 실제로 모든 가능성을 포괄한다면 오류가 아니지만, 중간 입장이나 다른 사정을 배제하면 문제가 된다.

보기는 '사랑하면 약속을 지킨다'와 '사랑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만 가능한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상대를 사랑하면서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내 부탁을 거절하다니, 넌 나를 싫어하는구나'도 같은 구조이다. 상대를 좋아하면서도 부탁을 들어줄 능력이나 여건이 없을 수 있으므로, **부탁의 거절이 곧 싫어한다는 증거는 아니다**.

나머지 후보는 이 기준과 구조가 다르다. 이등병에 관한 문장은 관찰한 사례를 집단 전체의 특성으로 넓히고, 김씨에 관한 문장은 '참말만 한다'는 결론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같은 뜻의 말로 뒷받침한다. 의사의 거짓말에 관한 문장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들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여 두 경우만 남기는 방식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10.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감독관 원고! 원고!
교수 (일어나며) 네, 곧 됩니다. 또 독촉이군.
감독관 (책상 쪽을 가리키며) 원고! 원고!

교수, 소파 한구석에 있던 가방을 집어 갖고서 황급히 책상에 가 앉는다. 가방에서 원고를 끄집어내고 책을 펼친다.

감독관 원고! 원고!

이윽고 교수는 번역을 시작한다. 감독관이 창문을 닫고 사라진다. 처가 들어온다. 큰 자루를 손에 들고 있다.

처 어머나! 그렇게 벌거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막대기에 감긴 철쇄를 줄줄 끌어다 교수의 허리에 감아 준다.

① 전통적인 사실주의 극문학이다.
② 반공주의적인 목적극의 대본이다.
③ 근대극이 뿌리를 내린 시기에 창작되었다.
④ 사회 현실을 풍자한 부조리극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처가 교수의 허리에 철쇄를 감아 주면서 옷을 입히듯 말하는 장면은 **비현실적인 상황을 일상처럼** 보여 준다.
반복되는 원고 독촉과 이러한 행동을 통해, 노동에 얽매여 인간다운 삶을 잃은 현대인의 처지를 풍자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보기는 이근삼의 '원고지' 일부이다.

① X: 전통적인 사실주의극은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과 인물의 행동을 개연성 있게 제시한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처가 철쇄를 두르지 않은 교수를 벌거벗었다고 말하며 허리에 철쇄를 감아 준다. 현실의 구속을 비현실적인 행동으로 드러낸 것이므로, **반사실주의적 표현을 활용한 부조리극**으로 보아야 한다.

② X: 반공주의적인 목적극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특정 이념을 전달하려는 극이다. 이 장면에서 감독관의 독촉은 교수에게 번역 노동을 강요하는 압박을 보여 준다. 작품이 비판하는 대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인간을 돈벌이와 노동의 도구로 만드는 현실**이다.

③ X: 한국에서 근대극이 뿌리를 내리던 시기는 학생극과 극예술연구회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 1920~1930년대이다. '원고지'는 **1960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사실주의 중심의 기존 연극에서 벗어나 새로운 표현 방식을 시도하던 흐름에 속한다. 근대극 정착기의 작품이라는 설명은 시기를 잘못 연결한 것이다.

④ O: 부조리극은 비합리적인 상황과 반복되는 말·행동 등을 통해 인간 존재와 삶의 모순을 드러낸다. 감독관은 '원고! 원고!'만 반복하고, 처는 교수를 철쇄로 묶는 일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러한 장면은 교수를 자유로운 인격체보다 일하는 도구처럼 취급하는 현실을 드러내며, **노동의 구속과 인간 소외를 풍자**한다.

NoteBase

문 11.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가장 옳은 것은?

① 왜냐하면 한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②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합격했다는 사실이다.

③ 내가 그 분을 처음 뵌 것은 호텔에서 내 친구하고 만나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다.

④ 학계에서는 국어 문법에 관심과 조명을 해 나가고 근대 국어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처음 뵌 것은'은 처음 만난 시점을 화제로 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다'는 그 시점을 설명한다. 만난 시점과 그때의 상황이 연결되어 **주어와 서술어가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왜냐하면'은 앞서 한 말의 이유를 설명할 때 쓰므로, 뒤에는 **'~기 때문이다'**가 호응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로 고친다. '~다는 것이다'는 내용을 제시하는 표현이어서 이 문장의 이유 설명과 어울리지 않는다.

② X: 주어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까닭은'은 이유를 요구하는데, 서술어인 '우리가 합격했다는 사실이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호응이 어색하다. **'까닭은 ~기 때문이다'**의 구조로 연결하여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합격했기 때문이다.'로 고친다.

③ O: '내가 그 분을 처음 뵌 것은'은 처음 만난 시점을 화제로 삼은 부분이고, '호텔에서 내 친구하고 만나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다'는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다. **'처음 뵌 것은 ~때였다'**의 구조로 주어와 서술어가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④ X: '관심과 조명을 해 나가고'에서 '관심'과 '조명'을 하나의 서술어 '해 나가다'에 함께 연결한 것이 어색하다. **'관심을 가지다'와 '조명하다'**처럼 각각에 맞는 서술어를 써야 한다. '학계에서는 국어 문법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조명해 나가고, 근대 국어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로 고친다.

NoteBase

문 12. <보기>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조선시대 임꺽정에 관한 모든 기록은 그를 의적이 아니라 도둑으로 기록하고 있다. 『명종실록』은 물론 박동량의 『기제잡기』, 이익의 『성호사설』, 안정복의 『열조통기』,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등 임꺽정에 대해 언급한 모든 기록들에서 그는 도둑이다. 물론 이런 기록들은 모두 양반 계급이 서술한 것으로서 백정 출신인 그의 행위를 지지할 리 만무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홍명희는 왜 소설 『임꺽정』에서 그를 의적으로 그렸을까? 그 근거는 앞서 인용한 『명종실록』 사관의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수령의 가렴주구 탓이며, 수령의 가렴주구는 재상이 청렴하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 및 "윤원형과 심통원은 외척의 명문거족으로 물욕을 한없이 부려 백성의 이익을 빼앗는 데에 못하는 짓이 없었으니, 대도(大盜)가 조정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라"는 기술에서 찾을 수 있다.

① 임꺽정이 의적인지 도적인지 더 철저한 문헌 조사가 필요하다.
② 홍명희가 임꺽정을 지나치게 미화했던 것이다.
③ 도둑이든 의적이든 임꺽정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④ 가렴주구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임꺽정을 의적으로 상상했을 것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관리들의 가렴주구와 권력자들의 탐욕에 관한 기록은 백성들이 겪던 고통을 보여 준다. 이를 바탕으로 **백성들의 처지**에서 임꺽정을 바라보면, 그를 단순한 도둑이 아닌 **의적으로 상상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이 문항은 각 문장의 역사적 사실 여부만이 아니라, 앞 글의 논지를 이어 가는 내용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글은 기록 속 임꺽정의 모습과 소설 속 모습을 대비한 뒤, 홍명희가 그를 의적으로 그린 근거를 당시의 수탈 현실에서 찾고 있다.

① X: 글은 임꺽정을 도둑으로 기록한 문헌들을 소개한 뒤, 홍명희가 그를 의적으로 그린 근거를 찾고 있다. 따라서 문헌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방향보다는, **이미 제시된 기록을 해석하여 의적 형상의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져야 한다.

② X: 임꺽정을 도둑으로 적은 기록들이 양반 계급의 시각에서 쓰였다는 점과, 백성을 수탈한 권력자들이 오히려 '대도'로 묘사되었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임꺽정을 의적으로 바라볼 여지를 마련한다. 따라서 **지나친 미화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백성들의 관점에서 의적 형상이 생겨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③ X: 임꺽정이 실존 인물이라는 점은 그에 관한 여러 기록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이미 전제되어 있다. 이를 확인하는 문장은 **홍명희가 왜 그를 의적으로 그렸는지**에 답하지 못한다. 뒤에는 실존 여부가 아니라 기록 속 사회 현실과 의적 형상을 연결하는 내용이 와야 한다.

④ O: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수령의 가렴주구 탓'이라는 분석은 도적의 출현을 관리들의 수탈과 연결한다. 또 권력자들을 '대도'라고 한 기술은 백성의 이익을 빼앗는 지배층의 탐욕을 드러낸다. 이런 현실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은 임꺽정을 자신들의 편에 선 의적으로 상상했을 수 있다. 이는 **백성의 처지에서 의적 형상의 근거를 설명하는 추론**이므로, 홍명희의 인물 형상화 이유를 묻는 앞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NoteBase

문 13. 단어 형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형용사 ‘기쁘다’에 동사 파생접미사 ‘-하다’가 붙으면 동사 ‘기뻐하다’가 생성된다.

② ‘시누이’와 ‘선생님’은 접미파생명사들이다.

③ ‘빗나가다’와 ‘공부하다’는 합성동사들이다.

④ ‘한여름’은 단일명사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이 문항은 '기뻐하다'의 '-하다'를 **형용사를 동사로 바꾸는 파생 접미사**로 보는 분석을 따른다. '기쁘다'는 형용사이지만 '기뻐하다'는 '기뻐한다'처럼 활용하는 동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 문항에서는 형용사 '기쁘다'의 활용형 '기뻐'에 '-하다'가 결합하여 동사 '기뻐하다'가 만들어진 것을 **접미 파생**으로 분석한다. '기쁘다'는 기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기뻐하다'는 기쁜 마음을 나타내는 동사로서 '기뻐한다'처럼 활용한다. 다만 '하다'를 보조 동사로 보고 '기뻐하다'를 합성어로 분석하는 견해도 있으므로, 접미 파생이라는 판단은 이 문항이 채택한 분석에 따른 것이다.

② X: '시누이'는 '누이' 앞에 '남편의'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 '시-'가 붙은 **접두 파생 명사**이다. '선생님'은 '선생' 뒤에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님'이 붙은 접미 파생 명사이다. 두 단어 모두 파생 명사이지만, '시누이'까지 접미 파생 명사라고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③ X: '빗나가다'는 '나가다' 앞에 '잘못'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빗-'이 붙은 접두 파생 동사이다. '공부하다'는 명사 '공부' 뒤에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하다'가 붙은 접미 파생 동사이다. 두 단어 모두 **접사가 결합한 파생 동사**이므로 합성 동사라는 설명을 고쳐야 한다.

④ X: '한여름'은 '여름' 앞에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한-'이 붙은 **접두 파생 명사**이다.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 명사가 아니라,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NoteBase

문 14.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보기>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뫼헤 매게 뽀친 가토릐 안과,

대천(大川) 바다 한가온ᄃᆡ 일천(一千)석 시른 ᄇᆡ에 노도 일코 닷도 일코 뇽총도 근코 돗대도 것고 치도 빠지고 ᄇᆞ람 부러 물결 치고 안개 뒤섯계 ᄌᆞ자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나믄ᄃᆡ 사면이 거머어득 져뭇 천지적막 가치노을 ᄲᅥᆺᄂᆞᆫᄃᆡ 수적 만난 도사공의 안과,

엇그제 님 여흰 내 안히야 엇다가 ᄀᆞ을 ᄒᆞ리오.

① 捲土重來

② 緣木求魚

③ 前虎後狼

④ 天衣無縫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노와 닻 등을 잃은 배가 풍랑과 어둠 속에서 수적까지 만났으므로, **여러 위험이 겹쳐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이다. 이는 앞에는 호랑이가 있고 뒤에는 이리가 있다는 뜻의 '전호후랑(前虎後狼)'에 해당한다.

공통 해설

'전호후랑(前虎後狼)'은 앞에는 호랑이가 있고 뒤에는 이리가 있다는 뜻으로, **재앙이나 어려움이 잇따라 닥치는 형편**을 비유한다. 실제로 호랑이나 이리가 등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이 겹쳐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쓴다.

밑줄 친 부분의 도사공은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노와 닻을 잃고 돛대와 키까지 손상된 배에 있다. 배를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데다 바람과 물결이 거세고, 안개와 어둠 때문에 갈 길도 막막하다. 여기에 수적까지 만났으므로, **이미 닥친 곤경에 또 다른 위험이 겹친 상황**을 나타내는 '전호후랑'의 의미와 연결된다.

NoteBase

문 15. 문맥상 <보기>의 ㉠,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현실 상황에서 개인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를 넘나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 없이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작동하는 일반적인 근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없다. 경험적 세계의 퍼즐을 푸는 일에 매달리지 않는 한, 이론적 저작은 경험적 세계를 반영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타성에 의해 (㉡) (으)로부터 빗나가게 된다.

① ㉠ 현실, ㉡ 이론
② ㉠ 이론, ㉡ 현실
③ ㉠ 경험, ㉡ 현실
④ ㉠ 이론, ㉡ 경험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여러 상황에 공통으로 작동하는 근본 원리를 이해하게 하는 것은 **이론**이다. 이론이 경험적 세계의 문제와 동떨어지면, 설명해야 할 대상인 **현실**에서 벗어나게 된다.

빈칸별 해설

㉠ 이론: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작동하는 '일반적인 근본 메커니즘'은 개별 사례들을 관통하는 공통 원리를 뜻한다. 이런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론이므로, ㉠에는 **'이론'**이 들어간다. '경험'이나 '현실'을 넣으면 개별 현상을 넘어 공통 원리를 파악하게 하는 이론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

㉡ 현실: 뒤 문장은 이론적 저작이 '경험적 세계를 반영하지 못한 채' 어디에서 빗나가게 되는지를 설명한다. 경험적 세계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이론은 그 세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빗나가는 대상은 이론이 설명해야 할 실제 세계, 곧 **'현실'**이다. 여기서는 개인이 겪는 일을 뜻하는 '경험'보다 설명 대상인 세계 자체를 가리키는 '현실'이 적절하다.

㉠에 '이론', ㉡에 '현실'을 넣은 조합은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6. 국어의 형태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는 앞말에 붙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존형태소'이다.

② 동사의 어간은 스스로 실질적인 단어이므로 명사와 더불어 '자립형태소'이다.

③ 명사는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동사의 어간과 더불어 '실질형태소'이다.

④ 어미는 조사와 마찬가지로 문법적 기능을 하므로, '문법형태소'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동사의 어간은 실질적인 뜻을 지니지만, 홀로 쓰이지 못하고 어미와 결합하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와 **자립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이다.

선지별 해설

형태소는 자립성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의미·기능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로 나눈다. 두 기준을 구별해야 실질적인 뜻이 있는 형태소도 의존 형태소일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① O: 의존 형태소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쓰이는 형태소이다. '학생이'의 조사 '이'는 앞말 '학생'에 **붙어서 쓰이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② X: 동사의 어간은 동작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지만 **어미 없이 홀로 쓰일 수 없으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예를 들어 '먹다', '먹고'의 '먹-'은 같은 뜻을 유지하는 어간이지만, 실제로 쓰일 때에는 '-다', '-고' 같은 어미와 결합한다. 따라서 동사의 어간은 자립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다. 명사는 '산'처럼 홀로 쓰일 수 있으므로 자립 형태소이다.

③ O: 실질 형태소는 대상·동작·상태 등의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이다. 명사 '산'은 대상을, 동사 어간 '먹-'은 동작을 나타내므로 둘 다 실질 형태소이다. 두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자립성에서는 차이가 있다.

④ O: 문법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문법적인 관계나 기능**을 나타내는 형태소이다. 조사는 앞말의 문장 성분상 관계 등을 나타내고, 어미는 시제나 문장의 종결 등 문법적 기능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학생이 먹었다'에서 조사 '이'는 주어임을, 어미 '-었-'은 과거를, '-다'는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므로 모두 문법 형태소이다.

NoteBase

문 17. 한자어의 독음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決濟(결재) ㄴ. 火葬(화상) ㄷ. 模寫(묘사)
ㄹ. 裁量(재량) ㅁ. 冒頭(모두) ㅂ. 委託(위탁)

① ㄱ, ㄴ, ㅂ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ㄹ, ㅁ, ㅂ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決濟'는 **결제**로 읽으며, '결재'는 決裁로 쓴다. '模寫'도 '묘사'가 아니라 **모사**로 읽어야 한다.

보기별 해설

ㄱ. X: 決은 '결단할 결', 濟는 '건널 제'이므로 決濟는 **'결제'**로 읽는다. '결재'의 한자 표기는 決裁이다.

ㄴ. X: 火는 '불 화', 葬은 '장사 지낼 장'이므로 火葬은 **'화장'**으로 읽는다. 제시된 '화상'은 葬의 음을 잘못 읽은 것이다.

ㄷ. X: 模는 '본뜰 모', 寫는 '베낄 사'이므로 模寫는 **'모사'**로 읽는다. '묘사'의 한자 표기는 描寫이다.

ㄹ. O: 裁는 '마를 재', 量은 '헤아릴 량'이므로 裁量은 **'재량'**으로 읽는다.

ㅁ. O: 冒는 '무릅쓸 모', 頭는 '머리 두'이므로 冒頭는 **'모두'**로 읽는다.

ㅂ. O: 委는 '맡길 위', 託은 '부탁할 탁'이므로 委託은 **'위탁'**으로 읽는다.

ㄹ·ㅁ·ㅂ을 모두 고른 조합은 ④이다.

NoteBase

문 18. 밑줄 친 부분 중에서 품사가 다른 하나는?

① 그곳은 비교적 교통이 편하다.

② 손이 저리다. 아니, 아프다.

③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해라.

④ 얼굴도 볼 겸 내일 만나자.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겸'은 '얼굴도 볼'이라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 만나는 김에 얼굴을 보는 일도 아울러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선지별 해설

① '비교적' — 부사: 일정한 수준이나 보통 정도와 견주어 '교통이 편하다'는 내용의 정도를 나타낸다. 바로 뒤의 명사 '교통'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교통이 편하다'는 내용 전체를 수식**한다.

② '아니' — 부사: '저리다'라는 말을 '아프다'로 바꾸면서 증상의 정도를 더 강조한다. 이처럼 **앞말보다 더 강한 표현을 이어 사실을 강조**하는 '아니'는 부사이다. 질문에 부정의 대답을 하거나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 '아니'와 쓰임이 다르다.

③ '보다' — 부사: '더'의 뜻으로 형용사 '낫다'의 관형사형인 '나은'을 수식한다. 따라서 '보다 나은'은 '더 나은'이라는 뜻이다. **비교 대상인 체언에 붙는 조사 '보다'**와는 구별된다.

④ '겸' — 의존 명사: 관형어 '얼굴도 볼'의 꾸밈을 받아, 만나는 일에 얼굴을 보는 일도 아울러 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겸'은 혼자 쓰이지 못하고 앞말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의 한 종류**이다.

①~③은 부사이고 ④는 의존 명사이므로, 문장 속에서 쓰인 품사가 다른 것은 ④의 '겸'이다.

NoteBase

문 19.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대저 이 세상같이 억울하고 고르지 못한 세상이 없는지라.
가난코 약한 사람은 그 부모가 낳은 몸과 하늘이 주신 귀중한 목숨도 보전치 못하고, 심청 같은 출천대효가 필경 임당수 물에 가련한 몸을 잠겼도다. 그러나 그 잠긴 곳은 이 세상을 이별하고 간 상계니,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큰 세상이라. 이욕에 눈이 어둔 세상 사람과 말 못하는 부처는 심청을 도웁지 못하였거니와, 임당수 물귀신이야 어찌 심청을 모르리오.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④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서술하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억울하고 고르지 못한 세상'에는 현실을 비판하는 판단이, '가련한 몸'에는 심청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가 드러난다. 이처럼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평가와 견해**를 직접 밝히고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서술자는 '이 세상같이 억울하고 고르지 못한 세상이 없는지라'라고 하여 **불공평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다. 또한 심청을 '출천대효'라고 높이 평가하고 '가련한 몸'이라고 표현하여 심청에 대한 동정도 나타낸다. 이는 사건을 전달하면서 서술자가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서술자 개입이다.

② X: 인물들이 말을 주고받는 대화는 제시되지 않는다. '임당수 물귀신이야 어찌 심청을 모르리오'도 인물의 대사가 아니라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설의적 표현**이다. 따라서 대화로 인물 간 대립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의 논평으로 세상에 대한 비판과 심청에 대한 동정을 드러낸다.

③ X: 인물의 얼굴, 표정, 옷차림 등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없다. '가련한 몸'은 외양을 통해 심청의 심리를 보여 주는 표현이 아니라 **심청을 불쌍히 여기는 서술자의 평가**이다.

④ X: 서술자는 심청을 자신의 이야기 속 인물로 지칭하며 그 처지를 설명한다.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체험을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심청의 사연을 전달하고 논평**하는 방식이다.

NoteBase

문 20. 밑줄 친 부분 중에서 목적어가 아닌 것은?

① 우리는 그의 제안을 수용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② 사공들은 바람이 불기를 기다렸다.

③ 아이들이 건강하지를 않아 걱정이다.

④ 나는 일이 어렵고 쉽고를 가리지 않는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를'은 목적격 조사가 아니라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건강하지를'은 보조 용언 '않아'와 함께 **서술어**를 이룬다.

공통 해설

목적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다. 명사뿐 아니라 명사 구실을 하는 절도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

'그의 제안을 수용할지를'은 결정할 내용인 제안의 수용 여부를, '바람이 불기를'은 기다리는 대상인 바람이 부는 일을, '일이 어렵고 쉽고를'은 가리는 대상인 일의 난이도를 나타낸다. 세 부분은 각각 **결정하고, 기다리고, 가리는 대상**이므로 목적어이다.

반면 '건강하지를'의 '를'은 연결 어미 '-지' 뒤에 붙어 **강조를 더하는 보조사**이며, 목적어를 표시하지 않는다.
본용언 '건강하다'와 보조 용언 '않다'가 결합한 '건강하지를 않아'는 함께 아이들의 상태를 서술한다. 따라서 밑줄 친 '건강하지를'은 목적어가 아니라 서술어를 이루는 부분이다.

NoteBase